

KT, 콘텐츠 사업 순항... '밀리서재' 중심 수익성 개선

지난해 지니뮤직 영업이익 32.6% ↑
이동통신·IPTV 결합상품 '강점'
경쟁사 제휴로 고객 점점 확대
독서 전 과정에 AI 접목으로 개인화

KT의 콘텐츠 사업이 통신 인프라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자책 콘텐츠 계열사 밀리의서재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9월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지니뮤직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2025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2억원으로 전년 대비 32.6% 늘어난 것.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4.0%에서 5.3%로 상승했다. 특히 밀리의서재를 포함한 도서 콘텐츠 부문 영업이익이 130억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도서 콘텐츠 부문 매출도 8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KT의 통신 인프라와 결합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강점으로 꼽힌다. 이동통신과 IPTV 가입자를 대상으로 음악·도서 콘텐츠를 결합상품이나 멤버십 혜택으로 제공하면 독립 플랫폼보다



KT의 콘텐츠 사업이 통신 인프라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고객 확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콘텐츠 구독도 이어지도록 해 장기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지니뮤직이 오랜 기간 축적한 음악 이용 데이터와 KT의 가입자 기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최근에는 KT 가입자를 넘어 경쟁사 고객으로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밀리의서재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한 데 이어 지난 4월 SK텔레콤과도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로써 통신 3사의 요금제와 멤버십을 활용한 가입자 유입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정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전부를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신사 입장에서요 요금제에 콘텐츠 혜택을 더해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AI를 독서 전 과정에 접목한 개인화 기술도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밀리의서

재는 지난해 대화형 독서 서비스 'AI 독파밍'을 선보였다. 이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도서를 검색하고 본문을 발췌·요약하며,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질문에도 답하는 자체 개발 서비스다. 최근에는 경제 전망서와 인문·사회 분야 전문서적처럼 분량이 많은 책을 효율적으로 읽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단순히 전자책을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이용자의 독서 이해도와 편

의성을 높여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밀리의서재는 지니뮤직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지니뮤직은 2021년 약 464억원을 투입해 밀리의서재를 인수한 뒤 코스닥 상장 이후 서영택 창업주가 보유한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다. 지니뮤직은 현재 지분 38.7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밀리의서재가 안정적인 이익을 내면서 지니뮤직은 연결 실적 개선뿐 아니라 배당을 통한 현금 확보 효과도 누리고 있다. 콘텐츠 계열사 인수가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해외 확장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자책은 국가별로 출판권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언어권별 번역과 현지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통신사 가입자 기반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같은 전략을 적용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수익 모델로 구현하려면 현지 콘텐츠 확보와 번역, 유통망 구축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조민선 기자

mjsjo@metroseoul.co.kr



metro

SKT, EU 지원 받아 양자암호 기술 개발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참여
차세대 양자키분배 구현·실증
소형화·AI로 안정성 유지 목표

SK텔레콤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3년간 양자암호 분야 연구를 지원받게 됐다. 양자키분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광학 장비를 소형화하고 이를 인공지능(AI)으로 자동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사용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SK텔레콤은 EU 연구기금 '호라이즌 유럽'의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아시아 민간기업으로 최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SK텔레콤은 차세대 'QPIC-AI' 기반의 양자키분배(QK

D) 시스템을 구현·실증이 목표다.

QKD 기술은 신호를 주고받는 양쪽에 서 양자 암호키를 만들어 나눠 갖는 방식으로, 보안 침해 시 양자의 상태가 달라져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현존하는 암호 체계 중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기술로 평가된다.

다만 QKD 장비가 크고 무거워 설치 시 많은 비용이 들고, 단일 광자 광원 등 정밀 과학 부품들을 각각 조립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해결책은 두 가지다. 여러 광학 장비를 광자집적회로(PIC)로 불리는 작은 반도체 칩에 넣어 소형화하고, 이 장비에 AI를 탑재해 온도·진동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사람이 장비를 조절

하지 않아도 통신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이후 반도체 공정을 통한 대량 생산으로 제품 단가와 전력 소비를 낮춰 비용을 절감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방·금융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된 QKD 기술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는 그리스 국립과학연구소(NCSR), 오스트리아 기술연구원(AIT), 독일 반도체 스타트업 시노 게이트UG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연구 총괄 및 QKD 광학계 제어용 AI 개발, 키 관리 시스템 개발, AI 기능 로직 설계 등을 맡아 수행한다.

/조민선 기자

KT, 월드컵 관람 지역 네트워크 특별점검

광화문, 시청 광장, 강남 영동대로 등
대규모 인파 집결 지역 중심 진행

KT는 월드컵 관람 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시청 광장, 강남 영동대로 일대 등 대규모 인파가 집결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KT는 이번 행사를 대비해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준비했다. 특히 KT는 대응 체계에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W-SDN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중앙에서 실시간 트래픽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부하 위험이 있는 기지국을 자동으로 선정 및 관리한다. 인파 밀집도와 서비스 사용량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네



KT 직원들이 8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첫 경기 응원을 앞두고 통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KT

트워크 자원 재배치로 대형 행사에서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이동기지국을 사전에 추가 배치하고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에서 응원 일정 전후로 24시간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즉각적으로 상황을 복구할 수 있는 인력도 준비했다.

/조민선 기자

LG U+ "AI로 나만의 콘텐츠 만들어보세요"

'유쓰 쇼츠 페스티벌' 열리

LG유플러스는 고객 참여형 영상 공모전 '유쓰 쇼츠 페스티벌' 2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담고 싶은 이야기를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AI를 활용한 나다움 표현'이다. 응모 부문은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 일상 속 이야기를 담은 '심플리' 부문과 AI 기반 음성과 사운드를 활용해 쇼츠 콘텐츠를 제작하는 '아트'로 나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제작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영상에는 반드시 'AI로 제작한 영상'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 필수 해시태그는 LG유플러스, 유튜브, 유쓰A 쇼츠페스티벌, 유쇼, 보이오AI 등 5개다. 연령·통신사와 무관하며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는 메가MGC커피아메리카노 쿠폰 1장을 증정한다.

참가자들은 AI 쇼츠 제작 방법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영상 제작에 활용하는 프롬프트와 가이드도 마련했다. 또 구글 AI 프로와 나노바나 등 최신 AI를 할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권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구글 AI 프로와 도미노 피자 패키지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대상 수상자 등 11명에게는 미국 LA에 있는 AI 박물관 '데이터 랜드' 견학, 구글 미국 오피스 AI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수상작은 모두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에 전시된다. 우수상(6명)·장려상(10명) 수상자에게는 상금 40~20만원이 각각 제공된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LG유플러스와 구글이 공동 발급



LG유플러스 모델이 유쓰 쇼츠 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하는 수료증도 수여한다. 수상 결과는 8월 중 발표한다.

LG유플러스의 장준영 마케팅그룹장(상무)은 "유쓰 쇼츠 페스티벌은 Z세대 고객들이 새로운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AI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활용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메타빌드,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로부터 2개 사업 수주

메타빌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분야 2개 사업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메타빌드가 수주한 사업은 '복지행정 AI안내도움미 사업', '복지 지역특화 AX-스프린트 응용제품 상용화 사업' 등 2건이다.

메타빌드는 복지행정 검색 증강 생성(RAG)과 AI 에이전트를 연결하고 복지대국민 AI 서비스와 지역특화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복지급여 서비스와 전주기 AI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제갈할 수 있는 '복지행정 AX 플랫폼'을 제공한다.

복지행정 AI안내도움미 사업을 통해 복지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연계를 기반으로 대국민 복지서비스 신청 이후 진행 상황과 제출서류 검증, 자격 선정 등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복지 지역특화 AX-스프린트 응용제품 상용화 사업'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완성도가 높은 AI 응용제품의 신속한 현장 적용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복지시설 등에 흩어져 있는 복지제도와 지역 특화사업 정보를 통합해 RAG로 구축한다.

또한 웹 기반 챗봇, 모바일, 상용 메신저, AI스피커, 키오스크 등 다양한 채널과 연계 가능한 구조를 적용해 고품질,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중심의 복지 안내 체계를 마련한다.

/조민선 기자